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전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7월 14일 (제698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취소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럼

AQ와 JQ

예전에는 IQ(지능지수)가 좋은 사람이 출세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 IQ 보다는 EQ(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EQ (Emotional Quotient)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다. 그 다음으로 NQ(Network Quotient)가 높아야 성공하는 시대로 돌입했다. NQ란 공존지수로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재는 지수다. 공존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쉽고, 소통으로 얻은 것을 자원으로 삼아 더 성공하기 쉽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AQ(역경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는 말이 돈다. AQ(Adversity Quotient)란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풀고 나가느냐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역경지수다.

성취하는 자와 성취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AQ의 차이이다. 지금의 유희와 만족을 뒤로 할 수 있는 용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패기, 이것이 AQ가 높은 자들이다. 그래서 AQ는 곧 성취지수라고도 한다.

나는 역경을 즐기지는 않지만, 역경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압박과 모함으로 점철된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아 같은 길을 28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전적인 도움이 우선이었지만, 또 하나의 요인은 남들보다 높은 AQ가 작용한 것 같다.

세상은 전쟁터다. 늘 침묵에 빠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수1:9)는 말씀이 세상 가슴에 와 닿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어?”

멕시코(Mexico) 마쿠스파나(Macuspana) 집회 첫날, 또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벼룩과 무더위에 허허거리던 터라 야외집회의 난처, 곧 비가 쏟아질 거란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다. 베네리세(Venerice) 목사가 이전부터 집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해왔었고, 도착 첫날에 그가 주정부를 움직여 일하는 모습을 보아온 터라 집회 역시 잘 준비했으리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태양이 사라지더니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라 집회 장

를 자책하게 되고, 다운될 수밖에 없다. 목사님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사55:8-9). 목사님은 베네리세 목사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셨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

과 고침을 받고 행진하자 모두가 기쁨으로 환호했다. 벼여리가 말하고 각색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는 역사 속에 모두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이틀날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오후가 되자 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 집회 장소까지 약 45분을 달려는데, 한 30분을 달리니 비가 오지 않고 있었다. 바닥을 보니 비온 흔적조차 없는 것 아닌가? 할렐루야! 현장에



멕시코 타바스코주 마쿠스파나 집회 광경

소로 향하는데, 숙소로부터 약 45분 거리. 그런데 집회 장소에 이룰수록 구름층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역시 ‘기도로 준비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집회 지역의 하늘만 풀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쏟아진 비로 집회 장소는 바닥에 물이 흥건했고, 베네리세 목사는 참석한 성도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실내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라구나(Laguna)의 주장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시 야외로 이동하였고 집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설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서둘러 다시 성전 안으로 이동하였다. 이쯤 되면 가장 난감한 사람은 집회를 배설한 베네리세 목사일 것이 분명했다. 스스로

는 이제와 달리 야외에 모든 설치를 마치고 모두가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물 폭탄이 떨어질듯 했다. “천사아, 꼭 잡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 이 상황에 할 것은 배운 대로 하는 것뿐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목사님이 성령과 방언기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가르칠 것 다 가르치시고 단을 내려가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기쁨과 감동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사님을 태우고 행진한다



타바스코 주정부 경찰대원들과 함께



비아에르모사 실업인 세미나(힐튼호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하3:6~11)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이의 반목을 통한 사울가의 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대사람에게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에 거했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마하냐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일 뿐,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선왕의 첩과 통간을 할 정도로 아브넬은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보다 못한 이스보셋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를 책망하자 아브넬은 분노하여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가 오늘 날까지 당신의 부친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은혜를 배웠을 뿐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어 왕으로 세웠거늘 당신이 이깎 여자 하나로 인하여 나를 책망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소. 내가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자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귀순합니다. 그러나 결국 요압장군의 칼에 아브넬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아브넬의 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삼하3: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은 곧 이 나라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 그 위를

그 민족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들이 땅에 보내셨습니다(갈4:4).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 부활하게 하심으로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완악하게 하시고(롬11:25), 이방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택한 백성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을
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가뭇

유다가 변심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심한 작자는 가뭇 유다가 인류구원에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가뭇 유다가 온 삼십 년에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것이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는 안 된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막8:33).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승하여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를 통해 구원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도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4:1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지파 대표들 중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도구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래도 니느웨 사람들

을 구원하셨을 것이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을 거절했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전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사장(死藏)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들었고, 유럽이 복음에 나태해지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지금은 우리나라로 들어와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시들해지면 이 복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 결국 주님의 계획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돌 감람나무를 접을 붙여서라도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물들을 명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관철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다른 사람을 채워 잔치를 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니면 남미지역이 복음화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

실 것입니다. 제가 곧 꿈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회의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여 쉬고 싶은 마음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가시며 “피곤하면 쉬어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

하나님의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는지 잠에서 벌떡 깬 것입니다. 그 꿈이 저를 더욱 달려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브넬처럼 하나님을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바로나 도비야, 산발랴, 그리고 아말렉이나 가뭇 유다처럼 하나님 경륜 속에서 악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비록 이방인이지만 라합이나 고레스나 아하수에로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100세를 산들 하나님의 시계로 2시간 조금 넘습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발맞추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떡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떡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룰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건강, 재물, 지식,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것이니까요(롬14:7).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의 시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경륜 속에서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됩니다.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에 두시고 택하셨음에 무한 감사하며 주님의 계획에 적극 동참합시다. 그러면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뿐이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는 것입니다(삼하3:10). 아브넬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위가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권세를 휘두르고 다윗에게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經綸)을 아십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지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렘33:2).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직원칼럼::

양적완화의 축소

미국은 2000년대 초의 IT거품 붕괴, 911 사태, 특히 장기화되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 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에 대한 제한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 3금융권들은 무분별하게 대출을 지원하고 해당 채권을 유수의 증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은 매입한 채권자산을 새롭게 조합한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비 은행권 금융기관(예, 보험사, 투자사, 투자금융사 등) 및 연금에 판매하자 가시적인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되었고, 또한 풍부한 유동성은 전세제 자본시장을 다시 호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 시장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2004년 미국의 중앙은행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질적인 안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다시 상향조정한 결과, 무리한 움직임을 안고 있던 대부분의 한계소득계층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연체 및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에게는 부실화된 채권과 폭락한 부동산만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를 도탄의 위기에 몰고 간 사건이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이때 FRB는 사건의 발생시점인 2008년부터 금리의 하향조정과 함께 2013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양적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e: QE)란 기준금리가 0%에 가깝게 낮아져도 투

자 및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국공채 등을 매입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경우 부작용으로 환율이 약세포지션을 유지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지만 달러가치는 오히려 상승되었고, 자본시장은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남유럽 국가의 금융위기가 유로화의 가치를 더 하락시켰기 때문에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보전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 FRB의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정책을 2014년 여름까지 완전히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자 주요 자본시장은 쇼크 상태에 진입했는데 이를 '버냉키쇼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의 축소는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신념을 정책 결정자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지만, 시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요셉은 7년의 연속적인 흉년에도 아들의 최대강국 지위를 유지하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유일의 강성대국으로 완성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으며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전3:1). 그리고 목사님은 오늘도 강조하십니다. "나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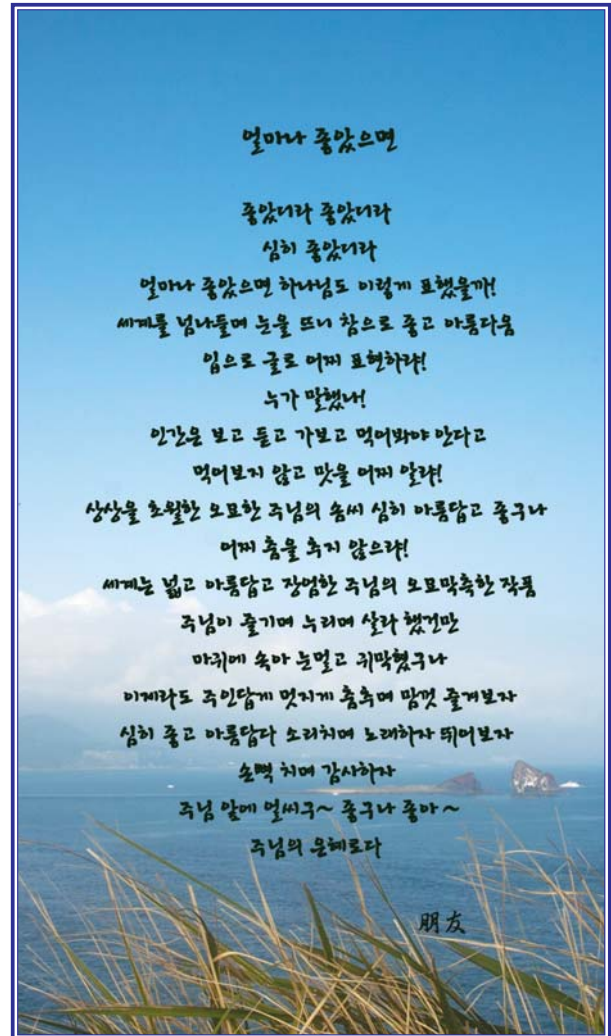
임윤석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비결

20세기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 중 한 사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Arthur Rubinstein, 1887~1982) 생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된 거장을 찾아간 기자가 세계 정상의 연주자가 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소문난 연습벌레였던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한다. 만일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그것을 알고, 이를 안 하면 주위 사람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정중치 않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기자가 찾아간 날도 루빈스타인은 연습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기억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반주로서 예배를 섬기는 큰 은혜를 받은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스스로 터득한 방식으로 피아노를 쳐오다가 18살이 되어서야 피아노 학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지만 저 오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과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그리고 연습, 또 연습이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공부와 연습을 병행하는 고3의 생활은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 내었기에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기 살기로 연습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어려운 곡을 연습할 때 특정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연습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왼 손, 오른 손 따로 연습해보고, 된다 싶으면 양손으로 느리게 연습해보고, 속도를 늦춰 다 빠르게 했다 하면서 그 부분이 잘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지겹도록 이어지는 연습이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결국 그 부분은, 나아가 그 곡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연주에만 적용되는 삶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잘 하고 싶으면 매일 외국어 방송을 보든지, 책을 읽든지 간에 반복해서 외국어와 함께 생활해야 하며,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매일 매일 정한 공부의 양을 채우고 예습, 집중, 복습을 통해 공부 근육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반복을 통한 철저한 준비만이 우리



::Healing in Music::



귀를 기울이세요

세계적인 전도자이자 위대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어느 추운 겨울날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성경공부와 기도생활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질문에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지퍼된 장갑들을 훌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장갑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목사님께서 장갑을 훌뜨려 놓아 냉기가 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길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람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 '나홀로' 신앙보다 더 불편하고 부담될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큰 능력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것입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김습아

gratiaseul@gmail.com

::정훈, 그 아름다운 이름::

2013년 현재, 잘 살고 있나요?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장 돌아가고 싶어요? 이 질문, 살면서 자주 듣게 되지요. 헤어진 연인과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서 다시 잘 해보고 싶다는 사람,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그때 포기했던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사람,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는 사람...

저에게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없어요."

과거가 불행해서도 현재가 엄청나게 행복해서도 아닙니다. 실제로 타임머신이 발명되어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나 자신이 나 자신인 이상 그 때와 비슷한 선택, 그 때와 비슷한 삶을 살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바꾸려면,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를 바꾸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느라 정작 현재에는 소

출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앞날을 걱정하느라 벌써부터 한숨 쉬며 사는 걸 종종 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뿐인데 그걸 자주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재를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2013년 새해에 우리가 적어놓은 계획표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꿈을 낱자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라는 말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을 부르고, 그 실천은 현재를 집중하며 살게 하는 힘이 되지요.

2012년 12월 31일 날 기대했던 2013년과 현재의 2013년이 다르다면, 그건 하루하루를 두루뭉술리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후회하

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지요. 2013년은 아직 반 밖에 안 지나갔고, 반이나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큰 기대와 꿈으로 적어 내려갔던 2013년도 계획표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미루고 있는지, 무엇을 잊고 있었거나 포기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만 달랑 쓰여 있던 것엔 구체적인 낱자와 실천방법을 찾아 적어도 보고, 크고 어려운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계획도 세워보고, 새롭게 생긴 목표도 다시 업데이트해보려 합니다.

그렇게 재정비된 계획표대로 하나하나 실천해나간다면, 후회 없는 현재를 살고, 후회 없는 2013년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다이어리를 꺼내, 2013년의 계획표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현재가 달라질 겁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세계적인 극작가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인생 7막'이라는 연극을 통하여 인생살이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사람들은 배우들로 등장도 하고 퇴장도 하는데 한 사람이 생전에 여러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제1막에서는 유모 품에 안기어 청일대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2막은 책가방을 둘러매고 환한 얼굴로 아침에 집을 나서지만, 학교에 가기가 싫어서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마지못해 학교에 가는 학생입니다. 제3막은 사랑에 빠진 청년으로 용광로처럼 한숨을 내쉬며 애

인을 찬미하는 슬픈 시를 짓습니다. 제4막은 군인으로 등장하여 당당한 맹세를 하며, 결핍하면 싸우려하고 물거품 같은 명성을 위하여 대포 아가리에도 뛰어 듭니다. 제5막은 법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뇌물로 받은 고기를 많이 먹어 아랫배는 휘어나고, 눈초리는 무섭고, 그의 입에서는 수많은 격언과 사설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6막은 슬리퍼를 끄는 뺨뺨 마른 노인네로 바뀝니다. 콧잔등에는 안경을 걸치고 허리에는 돈주머니를 찻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는 다시 옛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종결짓는 마지막 제7막은 제2의 유년이자 노망의 단계입니다. 이도 다 빠지고, 보이지도 않고, 입맛도 없어 먹을 수도 없는

나약한 노인이 되어 막을 내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몇 막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1막에서 시작해서 몇 막에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물질만이 최고의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이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인생은 "헛되나 허망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전1:2).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 7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살인진드기의 오해와 진실

얼마 전 보령시를 방문했다가 읍내에서 '살인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예방합시다!'라고 커다랗게 쓰여 있는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진드기의 정체는 작은소참진드기라는 것으로 집에 서식하는 집먼지진드기와는 아주 다른 종류이며, 야생으로 주로 전국의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드물게 도시지역 수풀이나 시가지 주변 풀숲에도 존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5~8월에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진드기 자체가 아니라 진드기 혈액 속에 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숙주동물인 사람이거나 가축, 야생동물의 혈액 속에 있다가 진드기를 통해 옮겨오는 것입니다. 중증열

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고열,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와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합니다.

일단 야외활동을 한 후 6~14일의 잠복기 이내에 38~40도에 이르는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야외활동을 하기 전에는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긴 소매 옷이나 긴 바지를 입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풀밭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않아야 하며 풀밭 위에서는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씻어서 햇볕에

말립니다. 등산, 트레킹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 기피제를 준비해서 뿌리거나 논밭에서 작업할 때는 기피제를 뿌린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합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의 100마리 중 1마리 이하에서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가 발견되므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야생진드기에게 물린다고 해도 당시 바이러스의 양,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흔히 불리는 살인 진드기의 '살인'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여기에는 '살인 모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공포심으로 여행이나 야외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Q&A

Q: 사무엘상 28장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불러내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낙원에 가있는 영혼도 불러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혼이 사울에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19절 하반절)는 기록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은 낙원에 있는지, 음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사사들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벧후1:20).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3:16)고 말씀하시며 난해한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나 신접한 여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의 혼은 실제 사무엘의 혼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의 현상을 본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라 사악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고후11:14).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의 복술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울의 극단적인 타락에 사울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혼이 있을 곳은 분명히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간 사무엘은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관용하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의 내 잘못이었음을

생각하라!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루도 해방하지 마며

덕투지 마며 관용하며

범사에 은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가려라 하라

(디모데 3장 2절)